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이천시 설성면에 우리 풀꽃나무 심고

농촌 생활거점에 활력 더해

기사입력 : 2026.11.20 12:37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 최종태)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서 추진 중인 '설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성 별빛문화센터 주변에 우리 풀꽃나무 시범식재를 실시하고, 연계사업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과 함께 주민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식재는 설성 별빛문화센터 주변 약 75㎡의 화단에 하늘국화 60본, 패랭이꽃 20본, 미스킴라일락 4주 등 총 84본(주)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정부의 '우리 풀꽃나무 심기-꽃의 광복' 운동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우리 식물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농촌 경관 개선과 우리 풀꽃나무의 아름다움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과 녹음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식물 안내 푯말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의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설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기능 확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설성 별빛문화센터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시설인 설성 별빛문화센터는 연면적 660.67㎡,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유카페와 공유주방, 미디어실, 방음실 등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복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해당 시설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동일 부지에서 이천시가 추진하는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연면적 329.68㎡, 지상 2층 규모의 행정·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공간에는 반찬봉사실, 농업인상담소, 회의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 행정서비스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사업이 동일 부지에서 연계 추진됨에 따라 문화·복지시설과 행정·주민편의시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동과 생활서비스 기능이 어우러진 설성면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은 “이번 우리 풀꽃나무 시범식재는 농촌 생활거점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행정공간 확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

<저작권자ⓒ이천일보 & www.2000ib.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